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하려면 (To make God come down)

눅 17:7 ~ 19

브라이언 채플 목사 / 2003. 1. 19

하나님은 선한 행위가 아닌 상한 심령을 찾아 오십니다.

‘내 선행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케 했다’는 고백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기막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은 비정해 보여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이십니다.

미국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마당에 장난감 집을 짓는 곳이 많습니다. 제 이웃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집에 ‘엄마는 파업 중’이라는 뜻말이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자, 화가난 엄마가 나무 위의 집으로 가출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역 TV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그분의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 남편은 “나는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서 아내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려오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 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기준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면 안 될 정도로 완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회의 증거를 위해, 그 사람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고쳐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준이 무척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뽕허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들에게 '내 식탁으로 와서 먹고 마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탁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네 할일을 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비정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종의 힘든 노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고대의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종업원이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종업원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당신 옆에 놓으며 "내가 당신을 먹였으니 나도 당신 옆에서 먹어야 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황당할 것입니다. 그 종업원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공로에 대한 트로피를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빛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과시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무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라며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야야.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 적은 없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아주고 용서한 적이 있느냐?"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11~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 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멀리 서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과 예배할 수도,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들은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내게서 떨어져라.”하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행동이 아닌 절박한 심정에 감동하십니다. “나는 절박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선함이 아닌 당신의 선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제 친구 아들이 10대일 때, 믿음을 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등을 돌렸습니다. 계속되는 아들의 빗나간 행동에 부모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어느날 경찰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기 싫어서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안에 혼자 남은 아들은 공허한 심정으로 앨범을 들추다가 한 사진을 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어렸던 이 때, 어머니는 희망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는데 저는 엄마의 희망을 망가뜨렸군요.” 그 순간 어머니 마음이 풀리며 아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아닌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상한 심령, 절박한 통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중 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을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처럼 지냈기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면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더 이상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가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한 일과 관계없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일으키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간증이 나오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선언한다면,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가 나를 정결케 했다. 그의 보혈이 나를 깨끗케 했다’고 고백한다면, ‘내 삶에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